국경 넘어선 자매들… “후학 양성 위해 써주세요”

오류마을 최양순 · 최신순 자매 임실군 애향장학회에 150만원 기탁

지역의 후학양성을 위해 수년째 국경을 넘어선 선행을 펼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역의 후학양성을 위해 수년째 국경을 넘어선 선행을 펼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임실군 성수면 오류마을에 거주하는 최양순(생활개선회 임실군연합회 초대회장)씨와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 최신순(독일거주)씨 자매가 그들이다. 이들 최씨 자매는 최근 심 민 임실군 애향장학회 이사장에게 장학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벌써 6년째 이뤄진 선행이다. 이들 자매는 지난 2013년부터 총 500만원의 애향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어, 지역민들 사이에서 기부천사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동생 최신순 씨는 70년대 독일로 건너간 간호사로 현재 독일에 정착했으며, 언니의 뜻에 동참하고자 먼 타국에서도 인재육성을 위해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양순 씨는 좀도리쌀 운동을 비롯해 재활용품 수거로 모은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선행을 이어왔다.

최양순 씨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에 힘써 바르게 장성한 자식들을 보며 지난날에 고마움을 느낀다”며 “이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기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뜻을 헤아려 준 남편과 자녀들의 응원에 고마울 따름”이라며 “적은 액수지만 우수인재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민 이사장은 “한결같이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두 자매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고향 임실을 사랑하는 마음에 깊이 보답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육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익산지구협의회 정기월례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익산지구협의회(회장 황원일)는 지난 13일 익산시 모현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 3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전승수 지청장과 최성국 제1부장검사, 강정욱 전담검사와 법사랑위원 군산?익산지역연합회 김동수 회장, 강성기 운영실장, 익산지구협의회 위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월례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하림그룹 이문용 대표이사가 법사랑위원 군산·익산지역연합회 부회장으로 추대되어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익산지구위원들과의 좌담을 나누는 등 익산시 관내 중·고등학생을 위한 상반기에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사업에 대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펼칠 것을 중점 논의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시 스마트 독서학습동아리 활동계획 보고회

전주시 공무원들이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책 읽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자기개발로 시정발전을 견인한다.

시는 1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스마트 독서학습동아리 대표 및 회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스마트 독서학습동아리 활동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스마트 독서학습동아리’는 전주시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 및 책 읽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학습동아리로 올해 △다독다독 △슬기로운 讀(독)깨비 △독사열전 등 총 17개팀, 119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스마트 독서학습동아리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 각 동아리별 소개와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독서학습동아리 활성화 방안과 동아리별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 시민 홍보

전주시가 새봄을 맞아 겨우내 도심에 방치됐던 쓰레기를 치우기로 했다.

시는 봄철을 맞아 청소 취약지역에 방치됐던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시민 홍보를 추진하는 등 환경정비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공무원과 자생단체회원, 일반시민 등 2500여 명은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도심공터 등 동별 청소 취약지를 일제 정비, 상습 쓰레기 투기 우려 지역 등 방치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는 등 일제 대청소를 했다.

특히 일제 대청소에 나선 시민들은 완산동 투구봉과 덕진구청 앞 벚꽃로를 정비하는 등 봄철 전주지역 주요 꽃구경 명소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땀을 흘렸다.

향후 봄꽃 개화기간에도 집중정비 및 순찰을 통해 꽃을 찾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전국 귀농운동본부, 순창귀농귀촌지원센터 발전 · 방안 논의

전국 귀농운동본부 이사진 20여명이 지난 13일 순창군을 찾아 순창귀농귀촌지원센터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은 귀농귀촌지원센터 위탁법인 이사회 교체에 따라 진행된 방문이며 외부에서 바라본 순창 귀농·귀촌의 위상, 순창 귀농귀촌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중심으로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발전 방안이 논의 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시 - 전주시치과의사회, 저소득 어르신 틀니 장착 지원

전주시와 전주시치과의사회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틀니 장착을 지원한다.

전주시보건소는 14일 전주시치과의사회와 치아의 손실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치 장착을 지원하는 의치(틀니)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중 구강검진 상 의치 장착이 가능한 어르신 등 50명은 전주시치과의사회 소속 치과에서 의치 장착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의치(틀니) 장착 대상자 선정과 저소득층 어르신 50명의 틀니 장착을 위한 3000만 원의 시술비 지원, 사후관리 등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전주시치과의사회에서는 시술의료기관 선정과 의치(틀니)장착, 장착 후 사후관리 등을 맡기로 했다.

/채규남 기자

강인철 전북경찰청장, 무주경찰서 방문 유공자 표창 수여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13일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를 방문해 협력단체 관계자 접견과 업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현장소통, 일선 치안현장을 위문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인철 청장은 협력단체 회원들께 협력치안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당부했다.

이어 강 청장은 지휘부와 현장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과 신뢰’의 수평적 간담회 시간을 보냈다.

또한 교통관리유공자 경위 전성구, 수사부서 환경개선 유공자 경위 김유창은 전북경찰청장 표창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방문에서 강인철 청장은 관행적인 의전과 형식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 현장 직원들과 신뢰와 수평적 분위기로 각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모습을 보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